

방역위생의 현황과 전망

대담자/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방역과장>

'75년도 같은 방역방법을 개선 않으면 '76년은 질병발생의 우려가 보인다!

■ 75년도의 닭질병 발생상황 및 그 분석은 어떻습니까? ■



75년도는 예년과 다르게 뉴캐슬병 같은 급성 전염병의 폭발적인 발생은 거의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그 이유는 74년도 보다 사육밀도가 상당히 낮았고, 사육수수가 크게 감축된데 있

<박근식 과장> 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발생빈도증가를 보인것은 만성전염병 성격을 띤 감염병이 특히 세균성질병으로 살모넬라 대장균종 포도상구균종 C.R.D가 초생추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초생추에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양계업의 첫출발이 잘못 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종계장, 부화장은 물론 양계가 자신의 자가감염에서 유래되는 근원을 철저히 색출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75년도 닭질병의 원인별 발생분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바이러스질병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 질병으로는 임파구성 백혈병이 가장 수위였습니다. 다음이 뉴캐슬, 마택 등의 순서였습니다. 특

표 1. 74-75년 닭질병 원인별 검색

구분	원 인 별	검 색 비 율 (%)		비교 증 감 Δ
		1974	1975	
감염병	세균성질병	19.4	18.0	△1.4
	곰팡이성질병	3.7	7.2	3.5
	바이러스성질병	25.2	21.9	△3.3
	기생충성질병	9.7	14.7	5.0
	소 계	58.0	61.7	3.7
비감염병	소화기질병	11.8	9.0	△2.8
	비노생식기질병	12.6	2.8	△9.8
	영양및대사장애	6.3	12.9	6.6
	기타	10.8	6.6	△4.2
병소	미지	0.5	2.1	1.6
	소 계	42.0	38.3	△3.7
	총 계	100.0	100.0	

표 2. 바이러스성 질병의 75년 검색

바이러스성질병	1975년도 검색		비 고
	검색건수	검 색 륜 (%)	
뉴캐슬병	13	17.8	
계 두	2	2.7	
마택병	11	15.1	
백혈병	45	61.6	
뇌척수염	2	2.7	
계	73	100.0	

히 만성형 백혈병에 의한 피해는 발병이 산란기에 도달하는 성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채란계에 큰 피해를 입힌 질병입니다.

기생충질병은 예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류코싸이토준병이 예년에 비하여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야외에서의 耐性株의 출

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시독도 예년에 비해 배가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와서 세균이나 원충에 대한 질병의 발생이 많았는데 기존사료에 이들에 대한 항생제나 항원충성 약제를 첨가해서 급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양계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을 분석해 보면 사료에 그 역가가 전량 함량되어 있는야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또 야외에서 이에 대한 병원체들의 내성이 강해지지 않겠나 보이며,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시급하며, 계속증가되는 피해를 빠르게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거년에 크게 피해를 입혔던 뉴킷슬병, 마라, 뇌척수염의 75년 발생은 어떠했으며 올해 큰 피해를 입힌 백혈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뉴킷슬병에서는 75년은 폭발적인 발생은 적었으나 백신사용추이로 보면 43.5%밖에 사용 안했기 때문에 76년에는 뉴킷슬발병의 우려가 보입니다. 따라서 양축가는 앞으로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확실한 접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5년도는 사육밀도와 사육수수가 줄어 들었으므로 개체, 지역, 계군의 거리가 멀어서 발생율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76년은 75년의 미흡한 백신접종방법을 갖고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우리 양계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나 단체, 계약, 사료공장등의 주최로 양축가를 위한 강습회나 계몽서비스가 좀 더 많이 열려 지속적인 방역위생방법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라에서는 71년이래 백신사용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고, 또 각 부화장에서 초생추 배부시 접종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75년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계협회를 통한 강습회나 세미나 등으로 일반양축가에게 취급요령등이 자세히 계몽된 탓이라 봅니다.

뇌척수염도 몇년전부터 발생되었던 질병이었는데 작년에 과학적인 판성이 위생연구소에서 내려진 이후 거의 큰 피해는 미리 예방되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무지의 종계업자가 AE백신 사용부주의나 무접종으로 뇌척수염 바이러스를 야외에 퍼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계장의 무지의 소산이기 때문에 각 종계장에서는 백신무접종으로 동거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백신접종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큰 피해를 입혔던 임파구성 백혈병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그 발생이 빠르며 지역간의 전파도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고 본다.

75년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접수된 가검물중 바이러스병 73종중 45에(61.6%)가 백혈병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병은 종계를 통하여 수직감염되거나 일반양계장에서 수평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서, 어릴 때는 불현성감염되거나 발병은 산란개시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아직 이병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되고 있으나 하루속히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계장에서는 종계감염이 다음 대의 병아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되며 위생연구기관도 종계에대한 백혈병 검색방법을 보다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며, 일반양계가들도 이병의 감염성격을 잘 파악, 적어도 육추는 2개월간은 격리육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생독백신은 반드시 백혈병에 감염된 종계로부터 얻은 종란은 백신제조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즉 난계대전염(卵繼代傳染, 介卵性傳染)이 되는 병원체가 종란에 함유될 위험이 크므로 하루 속히 무균 종계군을 통한 S.P.F.(특정병

원칙 부재)종란을 얻어 제조해야 됩니다.

■ 백신접종방법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양계강습회나, 세미나, 각계약회사나 사료업체의 계몽과 월간양계같은 축산전문지를 통하여 일반양축가에 많이 계몽,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양계업자가 백신접종의 보존방법과 시술방법을 소홀히 한 때문에 그 역가를 크게 떨어뜨려 질병을 많이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상에서나 시술방법에 보다 신경을 써서 백신의 최대한의 역가를 얻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백신접종은 닭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 역가가 크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영양불량이나 기생충 및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는 그 역가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 소독제의 효과적인 사용과 역가문제는? ■

일반양축가는 소독관념이 있으나 소독약에 대한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독은 형식에 흐르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양계장을 방문해보면, 소독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소독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양계업에서 방역위생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식결여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좀더 업계의 계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양축가에게 이상적인 소독약을 (역가높고, 보존편리, 인축무해)엽가로 보급할수 있는 국산소독약의 개발이 좀 더 아쉽습니다.

■ 양축가를 위하여 위생연구소의 병성감정사업과 이용방안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일반양계, 양축인을 위해서 각 시도에 가축보건소나 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양축인들이나 일반 개업수의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을 병성감정하며, 예방 및 치료대책을 지도해 주는 기관입니다.

각시도 가축위생소는 도의 지시에따라 분소와 지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는 각시도별 가축보건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직접 담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종합적인 방역대책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요망됩니까?

종합적인 방역대책으로는 각지역별로 민간방역기구의 설치가 아쉽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확립되기전까지 만이라도, 과상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역방역을 위한 방역자위대를 편성해서 방역에 임해야 질병으로부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미래 양계의 영원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76년도 질병발생의 예측?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5년은 급성전염병의 폭발적인 발생은 적었습니다. 이것이 방역을 잘해서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주 원인은 74년에 비해서 사육밀도가 낮았고, 사육수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파력이 약했고 적절한 사육을 할 수가 있었던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뉴켓슬병 경우 이것은 효과적인 개체 백신 접종에 있어서 백신 소요량은 많았으나 75년도 실제 사용량은 극히 이에 미급하여 43.5%만 충당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때 내년도 뉴켓슬의 발생이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증가추세를 보였던 세균성질병도 원인을 제거 안하는 한 발병 여부가 있습니다.

76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축산인 모두가 "유비무환"의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